

남부고시 나래국어 이유진 교수

2019 지방직 7급 국어(B책영) 해설

이유진 국어

現) 남부고시 공무원 국어 전임 교수
 서경대학교 공공인적자원학부 교수
 前) KG팩스원 공무원 국어 전임 교수
 前) 메가스터디, 이투스청솔, 강남중로
 前) 동대부속고등학교 / 홍익대학교 /
 응지세무대학



집필) 이유진 우월한 문법규정, 박문각
 이유진 우월한 독해, 박문각
 이유진 우월한 어휘한자, 박문각
 이유진 국어 독해알고리즘, 박문각
 이유진 스파르타 기출300제, 박문각
 이유진 스파르타 실전300제, 박문각
 이유진 나래국어 문법의 단권화, 고시동네
 이유진 문풀 올인원, 고시동네
 메가북스 EBS 분석노트
 디딤돌국어의 모든 것(단권화) 시리즈
 디딤돌EBS 변형 시리즈 (비문학)

경도) EBS 수능특강 사진 검토, 자이스토리 검토
 기타) 법률저널 국문학과 국사의 입맞춤, 독해방법론, 학습심리 칼럼 연재

문 1.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현주가 취직이 되었다. ㉠ 이는 참으로 잘된 일이야.
- 지금 사는 ㉡ 그 집이 싫으면 다른 집을 알아보자.
- 재는 우리가 싫어했던 ㉡ 저것이 마음에 든대.
- 어르신, 제가 ㉡ 저 건물까지 부축해 드리겠습니다.

- ① ㉠: 앞에 발화된 진술의 내용을 지시하는 기능을 한다.
- ② ㉡: 화자와 청자 모두 모르는 대상을 지시하는 기능을 한다.
- ③ ㉡: 화자는 모르지만 청자는 아는 내용을 지시하는 기능을 한다.
- ④ ㉡: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가까이 위치한 대상을 지시하는 기능을 한다.

★ 정답: ① - 이론 문법 - 형태론 - 품사

★ 정답 해설:

㉠의 '이'는 앞에 발화된 '현주가 취직이 되었다.'를 지시하는 기능을 지닌 지시 대명사로, 문장의 주어이다.

★ 오답 해설:

- ② ㉡의 '그'는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대상(지금 사는)을 가리킬 때 쓰는 지시 관형사이다. 뒤에 오는 명사 '집'을 꾸미고 있다.
- ③ ㉡의 '저것'은 말하는 이나 듣는 이로부터 멀리 있는 사물을 가리키는 기능을 하는 지시 대명사로, 문장의 주어이다.
- ④ ㉡의 '저'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로부터 멀리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기능을 하는 지시 관형사이다. 뒤에 온 명사 '건물'을 꾸미고 있다.

참고) 지시 대명사 (우월한 문법·규정 p. 104)

분류	예
근칭(近稱)	이, 이것, 여기 등
중칭(中稱)	그, 그것, 거기 등
원칭(遠稱)	저, 저것, 저기 등
미지칭(未知稱)	무엇, 어느 것, 어떤 것, 어느 곳, 어디 등
부정칭(不定稱)	아무, 아무 데, 아무 곳 등

문 2. 다음을 고려한 보고서 작성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주제: 주거지의 관광 명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
- 목적: 북촌 한옥 마을, 이화 마을 등의 주거 지역에 관광객이 몰리면서 기존 거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이 위협받는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① 외국의 유사한 정책 사례를 조사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 ② 대상 지역에 주소지를 둔 관광 업체의 경영 실태 및 매출 실적을 분석한다.
- ③ 전문가 자문 회의와 주민 토론회를 열어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 ④ 대상 지역 주민들과의 면담을 통해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유형화한다.

★ 정답: ② - 독해(작문) - 글쓰기 계획

★ 정답 해설:

대상 지역에 주소지를 둔 관광 업체의 경영 실태와 매출 실적을 분석하는 것은 해당 지역 거주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오답 해설:

- ① 외국의 유사 정책 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제시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에 유용한 참고 사항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보고서의 주제와 목적에 부합한다.
- ③ 전문가의 의견과 실제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주거지의 관광 명소화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보고서의 주제와 목적에 부합한다.
- ④ 대상 지역 주민들과의 면담을 통해 실제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그것을 유형화하여 유형마다 해결책을 찾는 것은 제시된 문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보고서의 주제와 목적에 부합한다.

문 3. 밑줄 친 어휘 중 잘못 쓰인 것으로만 묶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혼자 낯선 이의 집에서 숙식을 ㉠ 불인다는 것은 분명 힘에 ㉡ 부치는 일로 보였다. 오늘은 측은한 마음에 딸을 ㉢ 불어 보았지만, 아무 대답 없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려고 우표를 ㉣ 부치고 있을 뿐이었다. ㉤ 불어 먹을 땅 한 평 없던 아버지일지라도 그 아이가 유일하게 정을 ㉥ 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문 6.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한국 전통 건축의 특징 중 하나는 여러 건물들이 일정한 축이나 질서에 의해 배치되고, 그 중간 부분에 크고 작은 마당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당으로부터의 시선이 마루를 거쳐 방으로 연결되고, 다시 창호를 통해 저 멀리 들과 강과 산으로 이어진다. 한국 전통 건축은 결코 자연을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 두고 열려진 건축 공간을 통해 정원처럼 즐기는 방식을 취한다. 그것은 자연을 정복하려는 중국 전통 건축이나, 자연을 소유하려는 일본 전통 건축의 특징과 명확히 구별되는 것이다.

한국 전통 건축물이 왜소하거나 초라해 보인다고 말하는 경우는 대개 외형적인 크기와 넓이 그리고 장식적 요소에만 집착하기 때문이다. 한국 전통 건축은 '검손의 건축'이다. 자연과 인간은 하나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자연을 침해하면서까지 건축물을 두드러지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 전통 건축의 기본 철학이다. 더 나아가 건축물도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해서, 인간이 잠시 그 품에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것이 옳다는 철학도 한국 전통 건축에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부터 산과 들을 제압하는 거대한 건축물을 짓지 않으려고 했으며, 그 형태 또한 인위적인 직선을 배제하고 자연계의 곡선을 따르는 것을 즐겼다.

- ① 한국의 전통 가옥은 방의 창문을 통해 자연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 ② 한국 전통 건축은 자연을 소유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면에서 일본 전통 건축과 다르다.
- ③ 한국 전통 건축에서 자연을 압도하는 건축을 추구하지 않은 것은 건축물을 자연의 일부로 여긴 까닭이다.
- ④ 한국 전통 건축의 조형미를 직선보다 곡선에서 찾은 것은 한국 전통 건축의 철학을 잘못 이해한 결과이다.

★ 정답: ④ - 독해(비문학) - 내용 일치 부정 발문
★ 정답 해설:
 한국 전통 건축의 철학은 자연을 정복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두며 열린 건축 공간을 선호한다. 또한 자연과 인간은 하나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건축물도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한국 전통 건축은 인위적인 직선을 배제하고 자연계의 곡선을 따랐다고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 전통 건축의 조형미를 직선보다 곡선에서 찾은 것이 한국 전통 건축 철학을 잘못 이해했다는 선지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해설:
 ① 첫째 문단에서 '마당으로부터의 시선이 마루를 거쳐 방으로, 다시 창호를 통해 강과 산으로 이어진다.', '한국 전통 가옥은 열린 건축 공간을 통해 정원처럼 즐기는 방식을 취한다.'는 대목에서 ①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② 첫째 문단에서 한국 전통 건축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두는 특성이 자연을 소유하려는 일본 전통 건축의 특징과 구별된다고 서술되어 있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둘째 문단에서 한국 전통 건축은 '검손의 건축'으로 자연을 침해하지 않으려 했고 이는 건축물도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했다는 부분을 통해 자연을 압도하는 건축을 추구하지 않은 것은 한국 전통 철학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문 7. '효녀 지은'의 행위를 나타내는 사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효녀 지은은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홀로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아침과 저녁으로 문안드리며 곁을 떠나지 않았다.
 - 『삼국사기』 열전 '효녀 지은'에서 -

- ① 肝膽相照
- ② 磨斧爲針
- ③ 昏定晨省
- ④ 孤掌難鳴

★ 정답: ③ - 어휘 - 한자 성어
★ 정답 해설:
 효녀 지은이 밤낮으로 어머니를 섬기고 효성을 다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혼정晨省(昏定晨省)'이 적절하다.
 昏 어두울 혼, 定 정할 정, 晨 새벽 신, 省 살필 성

★ 오답 해설:
 ① 肝膽相照(간담상조):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고 친하게 사귀. 肝 간 간, 膽 쓸개 담, 相 서로 상, 照 비출 조
 ② 磨斧爲針(마부위침):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음. 磨 갈 마, 斧 도끼 부, 爲 할 위, 針 바늘 침
 ④ 孤掌難鳴(고장난명)
 「1」 외손뼉만으로는 소리가 울리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혼자 힘만으로 어떤 일을 이루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2」 맞서는 사람이 없으면 싸움이 일어나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 孤 외로울 고, 掌 손바닥 장, 難 어려울 난, 鳴 울 명

문 8. 높임 표현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장님, 벡타이가 잘 어울리시네요.
- ② 어머님, 아버지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 ③ 선생님, 어머니께서 위임장을 주셨습니다.
- ④ 시장님, 저에게 여쭙 보셨던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 정답: ④ - 이론 문법 - 높임법과 언어 예절
★ 정답 해설:
 시장님, 저에게 여쭙 보셨던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 시장님, 저에게 물어보셨던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제시된 문장에서 '여쭙어보다'가 높이는 대상이 '시장님'이 아닌 '저', 즉 화자이므로 옳은 높임 표현이 아니다. 상대방이 화자보다 나이가 많다면, '여쭙어보다'를 쓰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다'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여쭙다'는 '웃어른에게 말씀을 올린다', '웃어른에게 인사를 드리다'를 의미하는 단어로, 보통 웃어른에게 하는 말이다.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에 '여쭙어보다'와 '물어보다'가 합성 등재되어 있으므로 붙여 쓰는 것이 옳다.

★ 오답 해설:
 ① 부장님, 벡타이가 잘 어울리시네요. (O)
 간접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주어와 관련된 대상'에는 '말씀, 생각, 소유물, 가족, 신체 부분' 등이 들어간다. '벡타이'는 부장님의 소유물이므로 간접 높임의 대상이다. 따라서 '잘 어울리시네요'는 옳은 높임 표현이다.

참고) 간접 높임 (우월한 문법·규정 p. 349)
 간접 높임: 말하는 이가 주어와 관련된 대상(말씀, 생각, 소유물, 가족, 신체 부분 등)을 통하여 주어를 간접적으로 높일 경우
 ② 어머님, 아버지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O)

시부모 앞에서 남편을 이룰 때는 높이지 않는 것이 옳은 표현이므로, '아버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 압존법이 적용되는 상황이라고 착각할 수 있으나 압존법은 문장의 주체가 듣는 이보다 낮은 지위에 있을 경우 높임 표현을 사용할 수 없는 어법을 이른다. 서술어의 주체(남편)보다 듣는 이인 '어머님'이 더 높지만 주체(남편)가 말하는 이보다 높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압존하지 않는다. 또한 부부사이에서는 압존하지 않는 것이 옳다.

참고) 압존법 (우월한 문법·규정 p. 349)
 압존법(壓尊法): 문장의 주체가 듣는 이보다 낮은 지위에 있을 경우 높임 표현을 사용할 수 없는 어법을 이른다. 다만, 가족 간에는 압존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압존하지 않는 경우도 허용된다.
 ③ 선생님, 어머니께서 위임장을 주셨습니다. (O)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 주격 조사로 '가' 대신 '께서'를 활용하였고, 서술어 '주셨습니다'에서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를 활용하였다.

문 9.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은 항상 열 시쯤 돌아온다.
- ② 나는 사과를 친 원어치 샀다.
- ③ 그녀는 스무 살남짓 되어 보였다.
- ④ 그 일은 이십 세기경 일어난 일이다.

★ 정답: ③ - 어문규정 - 한글 맞춤법 - 띄어쓰기
★ 정답 해설:
 '남짓'은 '크기, 수효, 부피 따위가 어느 한도에 차고 조금 남는 정도'를 뜻하는 의존 명사로 스무 살 남짓으로 띄어 써야 한다.
★ 오답 해설:
 ① '-쯤'은 '알맞은 한도, 그만큼가량'을 더하는 접미사로 앞 말에 붙여 써야 한다.
 ② '-어치'는 '그 값에 해당하는 분량'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앞 말에 붙여 써야 한다.
 ④ '-경'은 '그 시간 또는 날짜에 가까운 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앞 말에 붙여 써야 한다.

문 10. (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公無渡河
 公竟渡河
 墮河而死
 當奈何
 - 백수광부의 처, 「공무도하가」 -

(나) 대동강(大同江) 아즐가 대동강(大同江) 너븐디 몰라서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빅 내어 아즐가 빅 내어 노흔다 샹공아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네 가시 아즐가 네 가시 림난디 몰라서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널 빅에 아즐가 널 빅에 연즌다 샹공아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대동강(大同江) 아즐가 대동강(大同江) 건너편 고즐어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빅 타들면 아즐가 빅 타들면 것고리이다 나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 작자 미상, 「서경별곡」에서 -

- ① (가)의 화자는 임과의 동행을, (나)의 화자는 임과의 이별을 선택한다.
- ② (가)의 '河'와 (나)의 '강'은 모두, 임과 나의 재회를 돕는 매개로 설정되었다.
- ③ (가), (나)의 화자 모두, 벌어질 상황에 대해 염려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 모두, 화자의 상대방이 보이는 반응이 희극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정답: ③ - 독해(문학) - 고전 운문의 내용 이해
★ 정답 해설:
 (가)의 화자는 남편인 '임'이 물에 빠져 죽을까 염려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으며 (나)의 화자는 배를 타고 자신을 떠나는 '임'의 모습을 염려하고 있다. 따라서 두 화자 모두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해 염려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오답 해설:
 ① (가)에서 화자가 임과 동행을 선택한다는 부분은 제시되지 않았고 오히려 빠져 죽은 임으로 인해 슬퍼하고 있다. (나)는 '임이 떠나는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함과 질투심을 진솔하게 드러내었고, 이별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이별을 강하게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② (가)의 '河'은 임의 죽음을, (나)의 '강'은 나와 임의 이별의 장소를 의미하기에 '재회를 돕는 매개로 설정됐다'는 선지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④ (가)와 (나) 모두 화자의 상대방이 보이는 반응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로 인한 희극적 분위기도 찾을 수 없다.
★ 작품 해설: 공무도하가, <백수 광부의 처>
 [현대어 풀이]
 그대여 물을 건너지 마오. / 그대는 기어이 물을 건너시네
 물에 빠져 죽으니 / 장차 임을 어찌할 것인가.
 • 해제: 공무도하가는 임을 잃은 슬픔을 애절한 목소리로 노래하고 있다. 이 노래에서 우리는 전통적인 한국의 여인상을 발견할 수 있다. 기다림과 한(恨), 체면에 묻혀 살아 온 인종(忍從)의 여성(女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노래는 한국적 정서인 한(恨)의 원류(原流)라 할 것이다.
 • 주제: 임을 여인 슬픔, 남편의 죽음을 슬퍼함, 물에 빠져 죽은 남편을 애도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함. 임과의 사별로 인한 슬픔
★ 작품 해설: 서경별곡, <작자 미상>
 [현대어 풀이]
 서경(평양)이 서경이 서울이지마는
 중수한 곳인(새로 댄 곳) 중수한 곳인 소성경(小城京)을 사랑합니다
 마는
 임과 이별하기보다는 임과 이별하기보다는 차라리 길썩하던 배를 버리고
 사랑만 해 주신다면 울면서 따라가겠습니다.
 구슬이 바위 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천 년을 홀로 살아간들
 사랑하는 임을 믿는 마음이야 끊기고 변할 리가 있겠습니까?
 대동강이 대동강이 넓은 줄을 몰라서
 배를 내어 놓았으나 사공아.
 네 아내가 놀아난 줄도 모르고
 가는 배에 몸을 실었느냐 사공아.
 (나의 남은) 대동강 건너편 꽃을
 배를 타고 건너편에 들어가면 배를 타고 건너편에 들어가면 꺾을 것입니다.
 • 해제: 한(恨)의 정서로 애절한 사랑의 감정을 노래하는 것은 우리 시가 문학의 전통으로서 평민적 서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 작품이 평민적 감정의 발현으로서 고려 속요의 가치를 보여 주는 특징적인 면은 3연이다. 사랑에 대한 믿음을 보이면서도, '강만 건너면 혹시 다른 여인을 사귀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과 질투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다는 점에서 고려 속요의 가치인 적극적 삶의 태도와 현실적 생활 감정의 표현을 느낄 수 있다.
 • 주제: 임을 여인 절망적 슬픔

문 11. '곰치'의 심리로 미루어 ㉠ ~ ㉤에 들어갈 지시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부 '곰치'가 선주 '임제순'에게 진 빚 때문에 모처럼 찾아온 만선(滿船)의 기회를 놓칠까 싶어 갈등하는 상황이다.]

임제순: (발끈해서) 아니면 으쨌 참이었? 이자를 생각해 봐! 놀렐 것이 못이여?

연 철: (비꼬는 투로) 놀렐 것 하나도 없지라우! 이렇게 될 줄 뻔히 알었지라우! (불같은 한숨)

임제순: 못이라고? 저놈이 어따 대고 비양질이여?

곰 치: (㉠) 알았음녀..... (연철에게) 아무 소리 말어! 다들 입을 봉해!

성 삼: 곰치! 입을 봉할 때가 따로 있어! (오기스런 안간힘)

곰 치: (㉡) 시끄러웠!

임제순: 곰치!

곰 치: (㉢) 말씀하시게라우.....

임제순:자네 섭섭할는지 모르겠네만은..... (강경하게) 남은 이만 원 청산할 때까지 내일부터 배를 묶겠네! 묶겠어!

성삼연철·도삼: 배를 묶다니?

구포덕: (뿔쩍 뛰며) 왔다! 큰 말씀이시게라우? 아니 해필이면 이럴 때 배를 묶어라우? 예에?

임제순: (단호하게) 나는 두말 않는 사람이여!

곰 치: (㉣) 영감님! 배만은! 배만은!

- 천승세, 「만선」에서 -

- ① ㉠: 체념 조로
- ② ㉡: 비아냥거리는 투로
- ③ ㉢: 지친 듯
- ④ ㉣: 애걸 조로

★ 정답: ② - 독해(문학) - 현대 산문의 내용 이해

★ 정답 해설:

'곰치'는 '임제순'에게 진 빚 때문에 '만선'의 기회를 놓칠까봐 계속 '임제순'의 눈치를 보고 있다. 따라서 언성을 높이는 '연철'이나 '성삼'이 '임제순'을 거슬리게 할까 봐 그들이 큰소리를 내면 주의를 시키는 것일 뿐, '성삼'에게 비아냥거릴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의 '비아냥거리는 투로'는 ㉡에 들어갈 지시문으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해설:

- ① '곰치'는 '임제순'의 눈치를 보고 있다. 따라서 '임제순'의 말에 큰 소리를 칠 수 없는 '곰치'는 '임제순'에게 '체념 조로'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③ '곰치'는 '임제순'과 '연철, 성삼'의 사이에서 계속 '임제순'의 눈치를 보고 화를 내는 '연철과 성삼'을 주의시킨다. 따라서 '임제순'이 '곰치!'라 부르는 것에 '㉢지친 듯' 대답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④ '곰치'는 만선의 기회를 놓칠까봐 계속 '임제순'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 따라서 배를 묶어버리겠다고 협박하는 '임제순'에게 '곰치'가 '애걸 조로' 배만은 안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다.

★ 작품 해설: 천승세, <만선>

- 해제: 이 작품은 작은 어촌을 무대로 곰치의 집념 어린 만선의 꿈과 어부로서의 삶의 의지, 그리고 하나 남은 마지막 아들을 바다로부터 지켜내려는 그의 아내 구포덕의 모성(母性)을 그리고 있는 희곡이다.
- 특징: 가난한 어민들의 삶을 역센 사투리를 통해 사실적이면서도 향토적 정감이 느껴지도록 형상화하였다.
- 주제: 어부들의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갈등

문 12. ㉠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근대 국가가 형성되면서 언어의 단일화를 이루기 위한 언어 정책이 (㉠)되었다. 러시아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당시 러시아 사회는 칭기즈 칸의 침략 후 문장어와 방언 사이의 (㉡)가 컸다. 표트르 대제는 불가리아 문장어를 버리고 모스크바어를 (㉢)으로 한 러시아어 표준어 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했다. 이때부터 푸시킨을 비롯한 국민적 작가에 의해 러시아의 문예어가 발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서양에서 봉건제가 붕괴되고 민주 의식이 (㉣)되면서 표준어가 결정되고 국민 문예가 성립하는 과정을 거쳤다. 한 나라의 표준어 형성, 나아가 국어의 통합은 이렇게 문예 작품의 발달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다.

- | | | | | |
|---|----|----|----|----|
| | ㉠ | ㉡ | ㉢ | ㉣ |
| ① | 시행 | 격차 | 기반 | 고양 |
| ② | 시행 | 편차 | 기반 | 지양 |
| ③ | 중단 | 격차 | 방식 | 지양 |
| ④ | 중단 | 편차 | 방식 | 고양 |

★ 정답: ① - 독해(비문학) - 일반 추론 + 어휘

★ 정답 해설:

㉠ 제시된 글의 마지막 문장에서 '표준어 형성, 국어의 통합'을 통해 언어의 단일화를 이루기 위한 언어 정책이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시행'은 '실지로 행함'의 의미고, '중단'은 '중도에 끊어지거나 끊음'의 의미다.

㉡ 칭기즈 칸의 침략 후 러시아 사회의 문장어와 방언 사이의 차이가 커졌다. 이에 표트로 대제는 러시아어 표준 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했다. 이때 '차이'와 같은 의미인 '격차'가 ㉡에 적절하다. 한편, '편차'는 '수치, 위치, 방향 따위가 일정한 기준에서 벗어난 정도나 크기'를 뜻한다.

㉢ '방식'은 '일정한 방법이나 형식'이라는 뜻이고, '기반'은 '기초가 되는 바탕, 또는 사물의 토대'라는 뜻이다. 러시아어 표준어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모스크바어를 '기반'으로 삼은 것이지, '방법'으로 활용한 것은 아니므로 '기반'이 적절하다.

㉣ 위계 서열이 있는 봉건제가 붕괴되면 민주 의식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정신이나 기본 따위를 북돋워서 높임.'이라는 뜻의 '고양'이 ㉣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지양'은 '더 높은 단계로 오르기 위하여 어떠한 것을 하지 아니함.'의 의미다.

문 13. 다음은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보기>를 참고할 때 ㉠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별 헤는 밤
㉡ - 울산과 부산서 11·12일 별 축제 열려 -

㉢ 11일과 12일 저녁 울산과 부산에서 가을밤 별자리를 관찰할 수 있는 축제가 잇따라 펼쳐진다.
㉣ 울산광역시와 한국천문연구원은 11일 오후 5시부터 한국우주전파관측망(KVN) 울산전파천문대에서 '울산전파천문대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별 축제'를 연다. 이 축제는 울산광역시 생활과학교실과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가 주관해 2010년부터 해마다 여는, 청소년을 위한 과학 문화 축제이다. ... (하략)

- ○○신문, 20○○. ○○. ○○. -

<보기>

신문 기사에서 '전문'은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한 부분으로, 대체로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기사 내용의 뼈대를 제공한다. 이는 본문을 요약하는 전문, 배경을 설명하는 전문, 여론을 환기하는 전문, 결과를 제시하는 전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① ㉠: 기사 내용을 요약 제시한 전문이다.
- ② ㉡: 사건의 결과와 함께 원인을 제시한다.
- ③ ㉢: 육하원칙의 몇몇 요소로 기사의 요지를 제시한다.
- ④ ㉣: 대중의 관심을 환기하는 전문에 해당한다.

★ 정답: ③ - 독해(비문학) - 실용문의 이해

★ 정답 해설:

㉢의 '11일과 12일 저녁(언제), 울산과 부산(어디서), 가을 밤 별자리를 관찰할 수 있는 축제(무엇을)' 통해 육하원칙의 몇몇 요소로 기사의 요지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해설:

- ① ㉠의 '별 헤는 밤'은 '별 축제가 열림'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제목이다. 기사의 내용을 요약해 제시하는 '전문'이 아니다.
- ② ㉡은 울산과 부산에서 11, 12일에 별 축제가 열린다고만 서술되어 있을 뿐, 어떤 사건의 원인이나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 ④ 울산과 부산 중 울산에서 열리는 별 축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대중의 관심을 환기하는 전문'이라 볼 수 없다.

문 14. 다음 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어디 뺄발 구석이거나
씩은 물웅덩이 같은 테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다급한 사연 듣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더디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겨안아 보는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 이성부, 「봄」 -

- ① 특정한 시어를 반복함으로써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 ② 단정적 어조로, 기대하는 대상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미래의 절망적인 상황을 단언하는 화자의 태도가 시상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 ④ 특정 대상을 인격화하여 대상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을 표현하고 있다.

★ 정답: ③ - 독해(문학) - 현대 운문의 형식 이해

★ 정답 해설:

화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너'가 오는 상황에 대해 기대하고 있고,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화자는 '너'가 오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미래를 절망적인 상황이라 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해설:

- ① '온다'라는 시어를 반복함으로써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 ② 화자는 '온다'라는 단정적 어조로 기대하는 대상('너')이 무슨 일이 있어도 올 것이라는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봄'을 '너'라고 표현하고, '사람'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대상을 인격화하여 '봄'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을 표현하고 있다.

★ 작품 해설: 이성부, <봄>

- 해제: 이 시는 '봄'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는 강한 신념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봄'은 계절 순환의 섭리에 의해 겨울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오는 당위적인 속성을 지닌다. 겨울이 시련과 절망의 이미지를 지니는 데 반해, '봄'은 생명의 소생이라는 희망적인 이미지를 지닌다. 따라서 이 시에서 '봄'은 '반드시 도래할 희망'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봄'은 시인이 살았던 시대 상황이나 그가 평소 다루었던 작품 경향으로 미루어 보아 '민주'와 '자유'로 생각할 수 있다. 즉, 이 시는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듯, 시대의 아픔과 절망이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라는 강한 신념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 주제: 봄에 대한 기다림, 자유와 평화의 새 시대를 기다리는 소망
- 특징: 대상을 의인화하여 상징적으로 그려냄
간절한 기다림의 어조를 통해 화자의 소망을 드러냄
- 성격: 예찬적, 상징적, 희망적

문 15.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해 왔다. 그 변화의 굵이들 속에서 사람들의 세계관이나 가치관 또한 다양하게 바뀌었다. 어느 세기에는 종교적 믿음이 모든 것을 지배하기도 했고, 어느 때는 이성 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으며, 또 어느 시점에서는 전 인류가 기계 문명을 근간으로 한 산업화를 지향하기도 했다. 그리고 21세기가 되었다. 이 세기는 첨단 과학과 정보 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변화의 진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변화된 모습이 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변화의 배경에는 늘 인간의 열망과 상상력이 가로놓여 있었다.

과학 기술의 진보와 이에 발맞춘 눈부신 문명의 진전 과정에서 인간의 열망과 상상력이 우선하였다. 과연 인간이 욕망하지 않고 상상하지 않았다면 이 문명 세계의 많은 것들을 창조하고 혁신할 수 있었을까? 하늘을 날고 싶어 하는 욕망이 없었다면 비행기는 발명되지 못했을 것이며, 좀 더 빠른 이동 수단을 원하지 않았다면 자동차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껏 상상력은 인류 문명을 가동시켜 온 원동력이었으며 현재 또한 그러하다.

그런 가운데 21세기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신과학들은 이러한 상상력의 위상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사람들이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여겨 공상 수준에 그쳤던 일들이 실로 구현되는 상황이 펼쳐지곤 한다. 3D, 아바타, 사이보그, 가상현실, 인공 생명, 유전 공학, 나노 공학 등 21세기 최첨단 과학 기술에 힘입어 상상력의 지평이 넓어졌다. 과거 시대들이 무엇인가를 상상하고 그것을 만들어 가는 기술을 개발하는 시간들이었다면, 21세기는 상상하는 것을 곧 이루어 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 ① 현재의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를 불변의 절대적 가치로 인정할 수는 없다.
- ② 인류 역사의 변화 과정에서 인간의 열망과 상상력이 끼친 영향이 크다.
- ③ 인류 역사의 변화 중에도 인간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실현된 세계의 모습은 변함이 없었다.
- ④ 21세기에 접어들어 과학 기술과 상상력의 위상 관계에 변화가 일고 있다.

★ 정답: ③ - 독해(비문학) - 일반 추론 부정 발문

★ 정답 해설:

인간의 열망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과학 기술의 진보와 문명의 진전이 이루어졌다. 세계의 모습은 계속해서 변화해 왔고, 21세기에 이르러서는 과거 공상 수준에 그쳤던 일들이 실제로 구현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의 모습에 변함이 없었다는 선지의 내용은 옳지 않다.

★ 오답 해설:

- ① 과거 어느 세기에는 종교적 믿음이, 어느 때에는 이성, 또 어느 시점에는 산업화가 인류가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였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류 역사에 따라 인류가 추구하는 가치도 계속 변해왔으므로, 현재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가 불변의 절대적 가치라고 할 수는 없다.
- ② 제시된 글은 '인간이 욕망하지 않고 상상하지 않았다면 이 문명 세계의 많은 것들을 창조하고 혁신할 수 있었을까?', '지속적인 변화의 배경에는 늘 인간의 열망과 상상력이 가로 놓여 있었다.'라고 하며 인류 역사 변화의 과정에서 열망과 상상력이 끼친 영향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 ④ 이전 시대까지는 무엇인가를 상상하고, 상상한 것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 왔다. 반면 21세기에는 상상하는 것을 곧 이루어 낼 수 있게 되어 과학 기술과 상상력 사이의 관계에 변화가 일어났다.

문 16. ㉠ ~ ㉣의 한자 표기가 모두 옳은 것은?

태어날 때 자기의 얼굴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얼굴은 부모 모님한테서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얼굴은 재주나 체질과 마찬가지로 ㉠ 운명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누구나 맑고 아름다운 얼굴을 갖기를 원한다.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지 못하는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톨스토이의 ㉡ 자서전적 작품을 읽어 보면, 젊었을 때 자기의 코가 넓적하고 보기 흉한 것을 무척 비판해서 ㉢ 열세적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얼굴의 근본 바탕은 세상에 태어날 때 운명적으로 결정되지만, ㉣ 성실한 노력에 따라서는 내면을 드러내는 인상이 바뀔 수 있다.

- | | | | |
|------|-----|-----|----|
| ㉠ | ㉡ | ㉢ | ㉣ |
| ① 殞命 | 自書傳 | 厭世的 | 成實 |
| ② 運命 | 自書傳 | 鹽稅的 | 成實 |
| ③ 殞命 | 自敍傳 | 鹽稅的 | 誠實 |
| ④ 運命 | 自敍傳 | 厭世的 | 誠實 |

★ 정답: ④ - 어휘 - 한자

★ 정답 해설: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 또는 그것에 의하여 이미 정하여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를 뜻하는 한자는 운명(運命)이다.

運 운전할 운 命 목숨 명

殞 죽을 운 命 목숨 명

'작자 자신의 일생을 소재로 스스로 짓거나, 남에게 구술하여 쓰게 한 전기'를 뜻하는 한자는 자서전(自敍傳)이다.

自 스스로 자 敍 줄 서 傳 전할 전

自 스스로 자 書 글 서 傳 전할 전

'세상을 싫어하고 모든 일을 어둡고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것'을 뜻하는 한자는 열세적(厭世的)이다.

厭 싫을 염 世 세대 세 的 과녁 적

鹽 소금 염 稅 세금 세 的 과녁 적

'정성스럽고 참됨'을 뜻하는 한자는 성실(誠實)이다.

誠 정성 성 實 열매 실

成 이를 성 實 열매 실

문 17. 다음 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처럼 동리자가 수절을 잘하는 부인이라 했는데 실은 슬하의 다섯 아들이 저마다 성(姓)을 달리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다섯 놈의 아들이 서로 이르기를,
 “강 건너마을에서 닭이 울고 강 저편 하늘에 셋별이 반짝이는데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말소리는 어찌도 그리 북곽 선생의 목청을 닮았을까.”
 하고, 다섯 놈이 차례로 문틈을 들여다보았다. 동리자가 북곽 선생에게,
 “오랫동안 선생님의 덕을 사모했사는데 오늘 밤은 선생님 글 읽는 소리를 듣고자 하옵니다.”
 라고 간청하매, 북곽 선생은 옷깃을 바로잡고 점잖게 앉아서 시(詩)를 읊는 것이 아닌가.
 “‘원앙새는 병풍에 그려 있고 / 반딧불이 흐르는데 잠 못 이루어 / 저기 저 가마솔 세발솔은 / 무엇을 본떠서 만들었나.’ 흥아(興也)라.”
 다섯 놈들이 서로 소곤대기를
 “북곽 선생과 같은 점잖은 어른이 과부의 방에 들어올 리가 있겠나. 우리 고을의 성문이 무너진 데에 여우가 사는 굴이 있다더라. 여우란 놈은 천 년을 묵으면 사람 모양으로 둔갑할 수가 있다더라. 저건 틀림없이 그 여우란 놈이 북곽 선생으로 둔갑한 것이다.”
 하고 함께 의논했다.
 “들으니 여우의 갓을 얻으면 큰 부자가 될 수 있고, 여우의 신을 신으면 대낮에 그림자를 감출 수 있고, 여우의 꼬리를 얻으면 애교를 잘 부려서 남에게 이쁘게 보일 수 있다더라. 우리 저 여우를 때려잡아서 나누어 갖도록 하자.”
 다섯 놈들이 방을 둘러싸고 우루루 쳐들어갔다. 북곽 선생은 크게 당황하여 도망쳤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겁이 나서 모가지를 두 다리 사이로 들이박고 귀신처럼 춤추고 짹짹거리며 문을 나가서 내닫다가 그만 들판의 구덩이 속에 빠져 버렸다. 그 구덩이에는 똥이 가득 차 있었다. 간신히 기어올라 머리를 들고 바라보니 똥뱀이 길목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똥은 북곽 선생을 보고 오만상을 찌푸리고 구역질을 하며 코를 싸쥐고 외면을 했다.
 “어허, 유자(儒者)여! 더럽다.”
 북곽 선생은 머리를 조아리고 똥 앞으로 기어가서 세 번 절하고 꿇어 앉아 우러러 아뢰다.
 “범님의 덕은 지극하시지요. 대인(大人)은 그 변화를 본받고, 제왕(帝王)은 그 걸음을 배우며, 자식 된 자는 그 효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 위엄을 취하며, 거룩하신 이름은 신령스런 용(龍)의 짝이 되는지라, 풍운의 조화를 부리시매 하토(下土)의 천신(賤臣)은 감히 아랫바람에 서옵나이다.”
 똥은 북곽 선생을 여지없이 꾸짖었다.
 “내 앞에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 들건대 유(儒)는 유(諛)라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네가 평소엔 천하의 악명을 죄다 나에게 덮어 씌우더니, 이제 사정이 급해지자 면전에서 아침을 떠니 누가 곧이 들겠느냐?”
 - 박지원, 「호질」에서 -

- ① 자연의 묘사를 통해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 ② 시를 통해 인물의 속셈을 던지시 드러내고 있다.
- ③ 동물을 의인화하여 유학자의 이중성을 들추고 있다.
- ④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로 대상을 비판하고 있다.

★ 정답: ① - 독해(문학) - 고전 산문의 형식 이해
★ 정답 해설:
 제시문은 ‘북곽 선생과 동리자의 밀회’ - ‘다섯 아들의 습격’ - ‘범과 북곽 선생의 대화’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황 묘사와 대화를 통한 전개가 주를 이룰 뿐, 자연을 묘사하여 주제를 강화하는 특징은 드러나지 않는다.
★ 오답 해설:
 ② 북곽 선생은 동리자에게 남녀의 사랑을 상징하는 ‘원앙새’가 나오는 시를 읊어주며 자신의 욕망을 던지시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시를 통해 동리자와 통정하고자 하는 속셈을 파악할 수 있다.
 ③ 의인화된 영물인 범이 북곽 선생을 꾸짖는 대화를 통해, 평소의 위엄있는 모습과 다급한 상황에서의 비굴한 모습이 대비되는 유학자의 이중성을 폭로하고 있다.
 ④ ‘유(儒)는 유(諛)’라고 하는 말은 동음이의어인 ‘선비 유’와 ‘아침 할 유’를 이용한 언어유희이다. 범은 이러한 언어유희를 통해 급박한 상황에서 비굴하게 아침하고 있는 유학자 북곽 선생을 비판하고 있다.
★ 작품 해설: 박지원, <호질(虎叱)>
 • 해제: 이 소설은 호랑이의 입을 빌려 위선적인 양반을 풍자한 한문 단편 소설이다. 박지원의 소설 중 부도덕한 양반에 대해 가장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 이 작품이다. 박지원은 양반 계층 자체를 비판했다기보다 양반답지 못한 양반을 비판하고 있는데, 양반이 선비로서의 도(道)를 지킬 때 비로소 존경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주제: 위선적인 양반에 대한 풍자
 • 줄거리: 커다란 범이 무엇을 먹을지에 대해 부하들과 의논한다. 그러다가 선비를 먹을 것을 결심하고 마을로 내려온다. 이때 도학자로 이름이 높은 북곽 선생은 절개로 이름 높은 동리자와 밀회를 하고 있었다. 북곽 선생을 여우가 둔갑한 것이라고 생각한 동리자의 다섯 아들이 어머니 방으로 들이닥치자 북곽 선생은 뒷문으로 도망치다가 똥구덩이에 빠진다. 구덩에서 겨우 기어나오니 범이 있어 옆드려 목숨을 비니 범은 인간들의 부정성을 심하게 꾸짖다가 돌아간다. 범이 사라진 후 북곽 선생은 끝까지 위선적인 모습을 보인다.

문 18. 다음 중 의미 중복이 없는 문장은?

- ① 투고한 원고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 ②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길거리를 도보로 걸었다.
- ③ 요즘은 남자들의 절반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 ④ 버스 안에 탄 승객은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은 분들이다.

★ 정답: ③ - 이론 문법 - 의미론 - 의미의 중복
★ 정답 해설:
 ③은 의미의 중복이 없는 문장이다.
참고) 의미의 중복(중첩) (우월한 문법규정 p. 336)
 1. 같은 내용이 되풀이되는 경우
 예) 매주 토요일마다 운동 (⇒ 매주 토요일에 운동 / 토요일마다 운동)
 여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 (⇒ 여쩔 수 없는 선택)
 서해 바다, 하얀 백자 (⇒ 서쪽 바다, 하얀 차)
 그것은 관수수 이상의 찬성을 얻었다. (⇒ 그것은 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었다.)
 지나가는 과객, 남은 여생, 역전 앞 (⇒ 지나가는 나그네, 남은 생애, 역 앞)
 젊은 청년들은 웅대한 꿈을 지녀야 합니다. (⇒ 젊은이들은~)
 그때 당시에는 그런 말을 많이 했다. (⇒ 그때에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무심히 도보로 걸었다. (⇒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걸었다.)
 빈 공간이 있어야 점포를 얻지. (⇒ 빈 장소가 있어야~)

2. 한자어와 우리말이 어울리는 경우
 예 여가(餘暇) 시간에 음악을 듣습니다. (⇒ 한가로운 시간에~ / 여가에~)
 미리 예습(豫習)을 합니다. (⇒ 예습을 합니다.)
 어려운 난관(難關)을 뚫고 (⇒ 난관을 뚫고)
 더러운 누명(陋名)을 썼다. (⇒ 누명을 썼다.)
 다시 재론(再論)할 필요가 없다. (⇒ 다시 언급할~)
 인생을 보는 관점(觀點)이 새롭다. (⇒ 인생을 보는 시각이 새롭다.)
 방학 기간(期間) 동안 공부를 많이 하자. (⇒ 방학 동안~)
 홀로 독수공방(獨守空房)을 지켰다. (⇒ 홀로 빈방을 지켰다.)

★ 오답 해설:

① '투고하다'는 '의뢰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신문이나 잡지 따위에 실어 달라고 원고를 써서 보내다.'라는 뜻으로 '원고'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라는 뜻이 중복되어 사용되었다.
 (⇒ 보낸 원고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③ '도보'는 '탈것을 타지 않고 걸어가다.'라는 뜻으로 '걷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걷다'라는 뜻이 중복되어 사용되었다.
 (⇒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길거리를 걸었다.)

④ '자매결연'은 '자매의 관계를 맺다.'라는 뜻으로 '맺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맺다'라는 뜻이 중복되어 사용되었다.
 '승객'은 '차, 배, 비행기 따위의 탈것을 타는 손님.'라는 뜻으로 '타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타다'라는 뜻이 중복되어 사용되었다.
 (⇒ 버스 안에 승객은 우리와 자매결연을 한 분들이다.)

문 19. 다음은 안중근 의사의 재판 기록 중 최후 진술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앞에서 검찰관의 논고와 변호사의 변론을 들으니, 모두들 이등(伊藤)의 시정 방침은 완전무결한데, 내가 그것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하는 말들이다. 이등의 시정 방침은 결코 완비된 것이 아닐진대 어찌 오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이등의 시정 방침이라는 것들을 잘 알고 있으나, 이등이 한국에서 주재하며 대한 정책으로 무엇을 했는지는 자세히 말할 시간이 없으므로 그 줄거리만을 말하고자 한다. ... (중략) ... 이와 같이 오늘 내가 말한 여러 계급의 인사들에게 다시 물어 봐도 모두 동양의 평화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줄 안다. 그와 동시에 간신 이등을 얼마나 중요하고 있는지 그 정도를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일본인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한국인으로서서는 자기의 친척과 지기(知己)의 죽임을 당하는 마당에 어찌 중요해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따라서 내가 이등을 죽인 것도 전에 말한 바와 같이 의병 중장의 자격으로 한 것이지 결코 자객으로서 한 것은 아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친선을 저해하고 동양의 평화를 어지럽힌 장본인은 바로 이등이므로, 나는 한국의 의병 중장의 자격으로서 그를 제거한 것이다.

- ① 안중근 의사는 검찰관의 논고를 듣기도 전에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 ② 안중근 의사는 이등을 제거한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고 있다.
- ③ 안중근 의사는 이등의 시정 방침이 완벽하지만 동양 평화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④ 안중근 의사는 여러 일본인의 의견을 언급하면서 이등을 제거한 행위의 정당성을 역설하고 있다.

★ 정답: ④ - 독해(비문학) - 내용 확인 긍정 발문

★ 정답 해설:

안중근 의사는 '여러 계급의 인사들이 모두 동양의 평화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등을 중요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일본인도 그러하거늘'이라고 하였으므로 앞서 나온 여러 계급의 인사들이 일본인들임을 알 수 있다. 이후 안중근 의사는 이들의 의견을 근거 삼아 이등 제거 행위의 정당성을 힘주어 피력하고 있다.

★ 오답 해설:

① '앞에서 검찰관의 논고와 변호사의 변론을 들으니'라고 하였으므로, 최후 진술은 검찰관의 논고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안중근 의사의 최후 진술의 논지는 본인이 한국 의병 중장의 자격으로 이등을 제거하였다는 것이다.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시인하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③ '이등의 시정 방침은 결코 완비된 것이 아닐진대 어찌 오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으므로, 안중근 의사는 이등의 시정 방침이 완벽하지 않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 20.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음 세대에 자신의 모어(母語)를 전달하지 않고자 하는 행위를 '언어 자살(language suicide)'이라고 한다. 언어 자살은 명백한 외부의 강압이 없으며 비교적 단기간에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가령, 멕시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토토낙어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취하지 않고 지역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는데도 이 지역 사람들은 모어 대신 스페인어를 사용했다. 이러한 언어 교체 현상을 멕시코 정부가 부추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연구에 의하면 언어 자살은 '경제성 상실, 사회 붕괴, 세대 간 문화적 연속성의 결여' 등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는 원인이나 결과이자 배경이다. '나는 부모님들처럼 이렇게 살지는 않겠어.'라는 집단적 자각이 한 세대로 하여금 단체로 모어 사용을 그만두게 할 수도 있는 셈이다.

- ①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 지배 전략 가운데 언어 말살 정책은 언어 자살 현상의 대표적 사례이다.
- ② 모어를 계승하려는 언중의 의지가 언어 자살 현상의 발생 가능성에 변수가 될 수 있다.
- ③ 멕시코 정부의 공식적인 언어 정책이 특정 지역의 언어 교체 현상을 유도했다고 보기 어렵다.
- ④ 부모 세대와 다르게 살겠다는 자식 세대의 집단적 자각은 언어 자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정답: ① - 독해(비문학) - 일반 추론 부정 발문

★ 정답 해설:

제시된 글에 따르면 언어 자살 현상은 명백한 외부의 강압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서구 열강의 언어 말살 정책은 하나의 식민지 지배 전략으로써 강압적인 것이므로 언어 자살 현상의 사례로 보기 어렵다.

★ 오답 해설:

② '토토낙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언중이 언어 사용의 의지를 상실할 경우, 자연스레 언어 자살 현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③ 멕시코 정부는 '토토낙어' 사용 금지 정책을 취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지역 문화를 존중하였다. 그럼에도 지역민들은 모어 대신 스페인어를 사용하였으므로, 멕시코 정부가 이 지역의 언어 교체 현상을 유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부모 세대와는 다르게 살겠다는 자식 세대의 집단적 자각은 그 세대로 하여금 단체로 모어 사용을 그만두게 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는 언어 자살의 원인이 될 수 있다.